우연
Zufall

1. 어원 및 개념 정의

'우연'을 의미하는 독일어 'Zufall'은 중고지 독일어 'zuovallen'에서 유래한다. 우연은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사건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외부적인 이유로 발생하며, 이미 주어진 상황에 급격한 반전이나 해결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늠할 수 없는 사소한 사건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때 통제할 수 없는 일, 예측 불가능한 일, 불확실한 일 등을 '우연'이라 부른다.

2. 과학과 철학에서의 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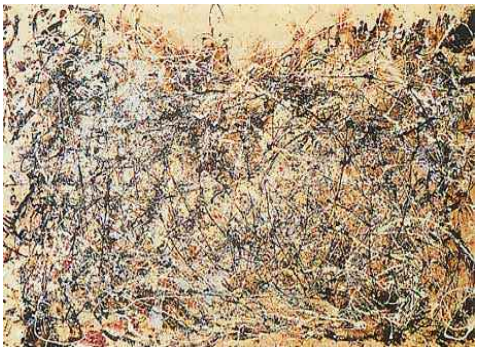
'합리적 이성의 시대'라 불리던 17세기 이후, 모든 것이 정해진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은 지배적이었다. 특히 뉴턴이 주장한, '자연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라고 하는 역학적 자연관은 세상의 다른 모든 것, 심지어 인간의 삶에도 이러한 법칙이 통용되어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는 사고를 낳았다. 하지만 20세기의 물리학은 필연성에 대한 믿음을 전복시켰다. 소립자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일정한 값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움직인다는 것을 밝혀낸 양자역학은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기존의 사고를 무너뜨림으로써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며 우연의 시대를 예고했다.

철학에서 '우연'은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관한 논쟁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결정론이란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결정론에는 '우연'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인간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인 우연의 인정 유무에 따라 자기행위의 주체자로서의 인간이 설정된다.

오늘날의 세계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인간의 삶 역시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과 합리성이 강조되면서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

는 상황은 우연에 대한 심리적 관심을 증가시킨다.

3. 모티프 유형



<우연을 강조하는 잭슨 폴록의 회화작업>

1) 돌발적 사건으로서 우연

의미 그대로 '예기치 못한, 기대하지 않게' 벌어지는 사건과 만남은 모두 우연으로 볼 수 있다. 문학에서 우연은 등장인물이 세워놓은 계획과 결정을 방해하며 사건의 연속성을 깨뜨린다. 이를 통해 우연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우연은 문학작품에서 특정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카프카의 소설『변신』은 주인공의 몸이 벌레로 바뀌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아무데서도 찾을 수 없다.

2) 신화적 우연(존재의 시험)

고대 신화에서 우연은 비일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사건에 신들이 개입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신화의 주인공인 영웅에게 자기존재에 대한 일종의 시험으로 기능하는데, 영웅은 이러한 사건들을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극복해야 하며, 그럴 때 진정한 영웅으로 성장한다.『오이디푸스』와 같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일련의 우연과 같은 사건들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

3) 신의 섭리로서의 우연

종교적 관점에서 모든 사건은 신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된다.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 역시 길게 보면 신이 정해놓은 방향 속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필연적인 역사의 일부분이다. 이 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은 신적인 방향이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신의 섭리를 이루는 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하르트만 폰 아우에의『그레고리우스』의 주인공 그레고리우스는 우연히 두 번에 걸친 근친상간을 저지르게 되어 극단의 고행을 시작하는데, 이 사건이 나중에는 그를 성자에 오르게 하는 계기가 된다.

4) 필연적 우연

우연은 필연에 반대되는 말이다. 필연이 '반드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데 비해 우연

은 '예기치 않게 일어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연은 어떤 인과관계나 법칙이 그 자체 내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일 뿐,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거나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우연에는 변함없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 필연적인 법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연적 사건이 작품 전체적으로 볼 때, 혹은 작품 마지막에 가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고트프리트 슈트라스부르크의 『트리스탄』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우연히 사랑의 묘약을 마시게 되면서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의 사랑은 필연(운명)적인 사랑으로 설명될 수 있다.

4. 서사구조

	내용
원인	신의 개입
	자기 존재의 시험
	운명, 필연
	예상치 못한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
과정	운명에의 순응, 저항
	시험의 통과, 실패
	계획의 수정
	우연의 연속
결과	무기력, 권태
	자유의지 상실
	참회와 반성
	신(종교)에게로의 귀의
	예상치 못한 만남과 결과
	죽음(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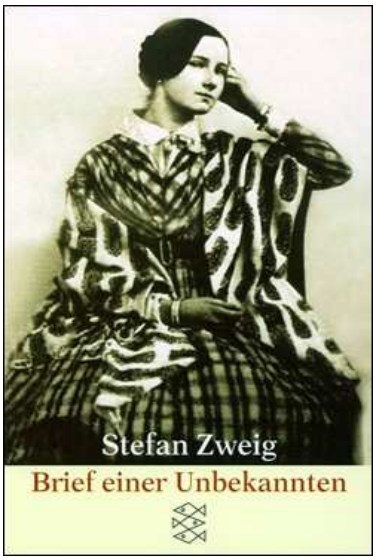
5.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모르는 여인으로부터의 편지 Brief einer Unbekannten』*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 Stefan Zweig(1881-1942)

* 안의정(역): 모르는 여인으로부터의 편지, 맑은 소리, 2003.

장르	소설
생성년도	1922년
등장인물	R: 비엔나의 저명한 소설가 집사: R의 집사 여인: 소설가 R에게 편지를 쓴다.

5.1. 내용 요약



저명한 소설가 R은 사흘 동안의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집사로부터 그간의 우편물을 받는다. 그 가운데 한 통은 전혀 모르는 여인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여인은 편지에서 자신이 평생을 두고 소설가 R을 사모했으며, R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바쳤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R은 자신을 한낱 거리의 여인, 혹은 성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으며, 몇 번 만나서 육체적 관계까지 가졌으나 R은 끝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번번이 새롭게 우연히 만난 여인으로만 생각한다.
그 동안 여인은 R과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 얻은 아이를 홀로 키우며 갖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사실을 R에게 알리지 않는다. 여인은 R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로부터 동정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R에게 짐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병으로 죽게 되자 여인은 R에게 원망이 아닌 그 동안의 일들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내고 자살한다.

5.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돌발적 사건으로서의 우연

- **서사구조:** 우연히 앞집으로 이사 온 소설가와 운명적 사랑에 빠진 어린 소녀는 평생을 두고 그의 주변을 맴돌다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한다.

원인	예상치 못한 사건의 경험: 앞집으로 이사 온 소설가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짐
과정	운명에의 순응: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적 사랑에 순응하며 살아감
결과	죽음: 아이가 병들어 죽자 자신도 자살

6. 작품 목록

슈트라스부르크 Gottfried Straßburg:『트리스탄』(ca. 1210)
아우에 Hartmann von Aue:『그레고리우스 Gregorius』(1187/1189)
폰타네 Theodor Fontane:『에피 브리스트 Effi Briest』(1895)
카프카:『변신 Dei Verwandlung』(1916)
츠바이크 Stefan Zweig:『모르는 여인으로부터의 편지 Brief einer Unbekannten』(1922)
만 Thomas Mann:『고등사기꾼 펠릭스 크룰의 고백 Bekenntnisse des Hochstaplers Felix Krull』(1954)

7. 연계 모티프

기적, 마법, 모험, 병, 방랑, 사랑, 신, 운명, 이별, 죽음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우연 + 이별 + 방랑 + 사랑 + 귀향
스토리	배를 타고 가다 예기치 않게 풍랑을 만나 낯선 곳을 떠돌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겪는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그로 하여금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마침내 고향에 이르게 한다.